

羅 稻 香 小 說 的 一 考 察

— 飛翔에의 慾望과 그 挫折 —

玄 吉 彦

〈目 次〉

- | | |
|----------------------------|--------------------------|
| I 稻香의 文學에 대한 一般的인 論議와 그 問題 | 3.1. 소의된 계층의 이야기(10) |
| II 稻香이 살았던 시대와 그의 生涯 | 3.2. 自己 認識의 葛藤과 人間關係의 破綻 |
| III 自己 認識의 葛藤과 飛翔에의 慾望 | 3.3. 飛翔의 慾望과 그 挫折 |
| | IV 稻香 소설의 意味 |

I 稻香의 文學에 대한 一般的인 論議와 그 問題

1.1. 1921年「新民公論」12月號에 〈추억〉이란 단편을 시작으로, 1922년부터 「白潮」 창간에 참여 〈별이나 안거든 울지나 말걸〉, 〈젊은이의 마음〉 등 단편을 발표하는 한편, 東亞日報에 장편 〈幻戲〉를 발표하면서 稻香은 文名을 날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문학 활동을 시작한지 불과 5~6年, 1926年 8월에 세상을 떠났으니 극히 짧은 일생에 단명한 작가였다. 1902년에 출생하였으니, 세상에서 산 것도 고작 스물다섯 해에 불과하고 작품 활동을 한 기간도 습작을 통틀어 5~6년에 지나지 않으니, 더구나 본격적으로 작품을 쓴 기간은 몇 해 안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문학 활동을 한 그에 대한 후세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감상적 낭만주의로 출발하여 후에 냉철한 리얼리즘 경향의 작품을 썼다는 것이다. 습작 기간을 합하여 5~6年 동안에, 한 작가의 작품 세계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오늘의 입장에서는 작가에게 던져질 수 있다.”

稻香의 경우 처음 작품을 발표할 당시부터 文名을 날렸었는데다가 더구나 그의 요절은 그의 문학을 과대 평가하도록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에게 붙여졌던 〈天才 作家 云云〉은 그

1) 이러한 경향의 변화는 문예사조적 측면보다는 한 작가의 문학적 세계의 성숙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려한 단적인 예이다. 어쩌든 그에게서, 초기에는 감상적이고 미숙한 작품을 쓴 데 비해 차차 사물의 객관적 인식에서 성숙된 작품을 쓰다가 죽었다는, 발전적 문학 생애를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²⁾

다음과 같은 東仁의 언급에서 稻香의 문학이 당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 졌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젊어서 죽은 稻香은 가장 촉망할 소설가였다. 그는 사상도 미성품이었다. 필치도 미성품이었다. 그러면서도 그에게는 열이 있었다. 銳角으로 파악된 「人生」이 紙面 위에 약동하였다. 미숙한 기교 아래는 그래도 인생의 일면을 불드는 증거가 있었다. 아직 소년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稻香이었으며 그의 작품에서 다분의 센티멘탈리즘을 발견하는 것은 아까운 가운데도 當然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센티멘탈리즘에 지배받지 않을 만한 침착도 그에게 있었다.³⁾

東仁은 이 글에서 稻香에 대하여, 촉망받던 소설가였는데 요절하였다. 그의 작품은 未成品이었다. 센티멘탈의 경향을 띄면서도 인생을 파악하려는 작가 정신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 銳角으로 파악된 人生이 紙面 위에 있었다.>는 문맥에 나타난 인생을 탐구하는 작가 정신이다.

불과 5~6년의 창작 기간은 그의 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원숙한 작품 세계를 찾을 수는 없겠으나, 감상적 경향의 초기 작품에서 차차 인생의 재현이라는 리얼리즘의 작품을 썼다는 데서 확실히 작가적 성장의 한 典型을 대하게 된다. 대부분의 한국 작가가 초기에는 왕성한 작가적 의욕으로 작품 활동을 하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차차 쇠퇴하여 가는 경향임에 반하여, 稻香은 오히려 뒤에 올수록 왕성한 의욕으로 진지한 작품을 썼다는 것은, 그의 작품이 단순한 文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성실한 탐구의 자세에서, 체험과 인간과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얻어진 결과임을 알 수 있으며, 더구나 순탄하지 못한 그의 생애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어떻든 일반적으로 그의 문학에 대한 후세의 논의는, 감상적 낭만주의 경향(幻戲)에서 사실주의적 경향(물레방아)으로 발전적 변모를 보여줬다는 것이다.⁴⁾ 그런데 사실주의적 경향이란 말은 당시 현실의 사회 상황을 반영하였다는 데서 이해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실주의라 말하지 않고 사실주의적 경향이란 표현을 쓴 데는, 아직도 그의 작품에서 사실적인 문체의 정립이 이뤄지지 않는 형편이고, 사실주의를 내세울 사상적 체제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그의 문학에 대한 평가로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라 생각

2) 정한숙, “나도향의 인간과 문학”, 「文學思想」, 6號, 1973. 6月.

3) 金東仁, “韓國近代小說考”, 「東仁全集」, 8, (弘宇出版社, 1968), p.596.

4)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 成文閣, 1969年, p.422. 金宇鍾, 「文學思想」, 6號, 1973. 6. p.288.

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稻香에 대한 그러한 논의가 개개의 작품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작품에 대한 피상적인 인상이나 작품의 어느 일면의 경향들을 적당하게 배합하여 그것이 바로 작가의 문학적 진실인 양 논의되는 사실을 대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작품에 얻어지는 <사회의 반영>이란 단순 논리가 설득력이 희박할 수 밖에 없다. 작품의 당대의 사회를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작가 연구는 궁극적으로 작가의 문학적 진실을 해명하는 일이고 문학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二次的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작가의 창작 동기와 행위가 결코 그런데 얽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의 자연스런 결과로서 이해되어질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논의의 대부분이 문학사적 의미 부여에 치우쳐왔기 때문에, 자연 선입견에 의하여 도식적인 이해에 빠질 우려를 얼마든지 갖고 있는 것이다.⁵⁾

1.2. 작가 연구는 개개의 작품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작가와 시대 상황과를 종합하여 한 인간의 문학적 진실을 해명하여 놓아야 한다. 이 글에서, 이러한 입장에서 稻香의 작품 중 후기 작품(병어리 三龍이, 물레방아, 池 亭植)을 중심으로 하여 작품의 갈등 구조를 분석하고, 그것을 시대 상황과 작가의 생애 가운데 올려 놓아서, 한 시대를 살았던 작가의 삶의 양식과 문학적 진실을 찾아, 그것이 한 시대의 문화 이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아보려 한다. 작가가 작품을 쓰는 동기는 자기 갈등에서 이뤄진다. 그것은 갈등이 만약 없다면 우리에게 문학이 있어야 할까 하는 의문과 관계를 갖는다. 한 작품을 쓰게 되는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은 자기 내부의 갈등이다. 작품은 사회적 상황 보다도 개인의 상황에 직접 관계된다. 물론 그것이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으나, 그 경우는 개인의 갈등이 바로 사회의 갈등과 일치할 때이다. 또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우선은 개인에게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은 작품은 독자적인 존재로서 개개의 구조 속에 나름의 진실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것이 곧 한 작가의 문학적 진실을 이루는 구조적 기능을 갖는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한 작가에게 주어지는 문학적 의미는 자연스런 결과의 문제이지, 선결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우리도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어떤 사상적 이데오르기의 표현으로 만족할 수 없고 그러기를 원하지도 않는 것과 같다. 더구나 가장 자연스런 자기 표현인 문학에서 작가의 문학적 진실을 어떤 사회 조 속에 감금해 두기를 원하여 또는 의도하여 작품을 쓰는 작가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작품의 이해는 갈등 구조의 분석에서 시작하려 한다. 갈등은 작품을 이루는 모티브이면서 작품을 전개시키는 근원이 되고, 작품 속의 인물들을 살아있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궁극

5) 문학사적인 이해 이전에 작가론이, 작가론 이전에 작품론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오히려 그 역순이었기 때문에 자연 이러한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

적으로 갈등이 없는 소설은 작품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각 작품의 갈등 구조의 분석을 통하여 플롯과 인물과 테마가 구체화될 수 있다.

Ⅱ 稻香이 살았던 시대와 그의生涯

2.1. 첫째는 「國權喪失」이란 구체적인 인식이 민중들의 의식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부딪쳐 왔던 시기였다. 1910년에 이미 淸邦이 되었으나, 日本이 영구적으로 韓國을 強點하리라는 생각을 일반 민중들이 절실하게 갖지 않았다. 더구나 皇帝도 살아있는 형편이었다. 그것은 無抵抗主義, 非暴力化主義를 표방한 3.1운동의 성격이나, 3.1운동 이후에 독립 운동이 좀더 조직화되었다는 점,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 등 국내외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韓國을 대신하는 여러 임시 정부를 수립한 일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⁶⁾ 3.1운동의 失敗와 皇帝의 崩御, 日本의 3.1운동 진압 상황과 對韓政策의 變化 등은, 사회 경제 체제의 변동과 복합되어서 1920年代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나라 없는 백성이라는 사실과 완전히 새 세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따르는 문제가 가치의 혼란과 더불어 일종의 〈위기의식〉이었다. 이런 정신적 혼란이 일반 민중들에게 잠재적으로 움트게 되었다.

둘째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사회 경제적 상황이 큰 변모이다. 일제의 強點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일제의 경제 수탈을 위한 여러 정책과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료 계층의 등장 등은 경제 구조의 일대 변모를 가져오면서 새로운 신분 계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대규모 일본 자본이 들어와 토지 투자를 비롯하여 토지 소유의 집중 현상이 일어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농민들의 경제 생활이 일본 사람들의 자본에 예속되고 또는 조세 및 전매 제도의 영향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빈민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아울러 거대한 일본 지주와 농장 회사 등의 대지주 경제가 이루어지면서, 당시 우리나라 전래의 지주로서는 미려한 경제적 능력밖에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 中小地主들은 몰락할 수 밖에 없었다. 즉 新舊地主의 교체 현상이 일어나면 일부 在來地主들 중에도 경제적 능력이 뛰어난 자는 일본 地主들과 마찬가지로 더 큰 地主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농민의 계층 변동이 심각하게 일어났다는 뜻이다. 이렇게 일부 농민 계층의 몰락과 새로운 地主의 등장 및 토지 소유의 변동에 따라 小作農 自作農이 점차 땅을 잃어가면서, 또는 小作料의 高率 인상 등으로 小作爭議가 점차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⁷⁾

6) 崔永禧 等, 「日帝下의 民族運動史」, (高大아세아問題研究所, 1971. 7), pp.74~75.

7) 金文植 等, 「日帝의 經濟侵奪史」, (高大아세아問題研究所, 1971)에 의하면 1922년에 124건 이었던 소작쟁이가 1928년에는 무려 1590건으로 증가되었다고 보고되었다(p.52).

여기에 비로소 신분과 자본이 분해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미 日帝強점 후 봉건적 신분제가 해체되기 시작하였는데, 양반들이 관직에 入仕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農·商·工의 신분적 매체와 양반이 생업 종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에 신분의 사회적 가치는, 과거에는 官職이었는데 資本 즉 物質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사회의 양반이 몰락하기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官職의 직업적 변수가 資本 등 다양한 것으로 변모되면서 복잡한 계층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상공업에 의한 자본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계급 형성으로 농촌 내부로부터 신분 해체와 자유경제가 싹틈에 따라 돈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것을 얻기 위한 다양한 방법(가내수공업, 상업, 보부상) 등이 추구되었으며 그것에 의하여 경제력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임진란 이후부터 천천히 싹트기 시작한 신분 해체의 경향은 韓末을 거쳐 정치적인 변혁기인 이때에 이르러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또 이로 인하여 逆階層化 현상이 일어나면서, 피지배계층의 의식이 양양되어 가던 차, 韓末의 농민운동 등으로 자주적 생존의식이 강화되어졌고, 이런 여러 요인들이 새로운 階層 形成을 가속화시켰다.⁸⁾ 이러한 때에 즈음하여 누구나 더욱이 과거에 억눌려 살았던 사람들은 신분적 自己 飛翔을 시도하기에 이른다.

2.2. 稻香은 이러한 시기에 자기 飛翔의 꿈을 안고 살았던 청년이었다. 당대 서울 장안의 名醫이며 독립 운동자의 후원자였던 羅 炳奎를 할아버지로, 의사가 되라는 집안의 권유에 京城醫專을 졸업 東京帝大 醫學部 外科를 졸업하였으나 의사예의 꿈을 거부하고 은둔자로 자처 독서로 소일하던 아버지 羅 聖淵에게서 1902年 3月 30日에 태어났다.

그는 당시 기독교청년회관(Y. M. C. A)에 설치되었던 攻玉 학교를 거쳐 1914년에 培材高普에 입학, 졸업 후 京城醫專에 입학하는 비교적 순탄한 생활을 하였다. 培材 시절에는 학보인 協成會報를 편집하는 등 문학예의 꿈을 키웠으니, 여기에서 그의 부친이 껴있던 갈등을 그도 갖고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결국 그는 1919年 할아버지 장농 속에서 돈을 갖고 집안 모르게 일본으로 건너간다. 그날이 고종의 因山날이었던 3월 1일이었다.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할아버지로부터 송금이 끊어지자 다시 돌아온다. 잠시 安東에 내려가 普通學校 교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1921년에 서울로 돌아와 「白潮」同人에 참여 작품을 쓰기 시작한다. 1925年 그는 다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일본으로 건너간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 뒷 해 거기같은 행색으로 돌아와 병석에 눕게 된

8) 윗책(pp.33~52)과 金泳模 等, 「日帝下の 民族生活史」, (高大 아세아연구소, 1971), (pp.521~545)에서 참조함.

다. 끝내 병석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뜨니 1926年 8月이었다.⁹⁾

그의 짧은 생애에서 특이한 점은, 그의 아버지나 그나 똑같이 가장 안정된 직업인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면서도 사실은 문학을 동경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의 할아버지의 권유와 그의 본래의 뜻과의 심한 갈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의 부친은 그 갈등을 소극적으로 극복하면서 외과의로서 병원을 개업, 스스로의 안주의 길을 찾았으나, 稻齋은 醫專을 중도 퇴학하고 할아버지의 돈을 훔쳐 일본으로 달아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기 상황에 대한 거부를 몸소 행동으로 나타냈다. 두 번이나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은 자기 생애 대한 치열한 도전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는 한마디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 죽어간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

그에게서 안정된 醫業을 거부하고 문학을 하려던 의도는 어째서 연유된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시대가 가져다 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변혁의 시대에 醫業이라는 안주의 길을 버리고 자신의 飛翔을 끊임없이 시도한다. 그러한 飛翔에의 욕망이 그의 작품 속에 형상화되어 있음을 찾을 수 있다.

Ⅱ 自己認識의 葛藤과 飛翔에의 慾望

소설 양식은 인간의 삶의 양식과 통한다. 적어도 1920年代 중반기에 쓰여진 稻齋의 일련의 작품 속에서 작가의 진지한 삶의 양식을 찾을 수 있다. 그만큼 그의 작품은 인생에 대한 끝없는 도전이 있고 상황을 극복하려는 진지함이 담겨져 있다.

격변기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에 자신을 飛翔하려는 강한 욕망을 갖는다. 전통적 봉건 사회의 붕괴라는 정치적 사회적인 변혁이 개화와 守舊의 갈등 속에 진행되어지더니, 3.1운동의 실패로 인한 日帝의 強点이란 정치적 현실과 개화라는 사회적 변혁이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 지기에 이른다. 또한 신분 체계와 경제 구조의 변혁 등은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데서, 다양한 생활 양식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기의 飛翔을 시도한다. 더구나 그동안 신분적, 경제적, 가정적 제재 속에 살았던 사람들일수록 새로운 길을 모색 지금까지 삶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 稻齋의 소설은 그런 의식을 가진 계층의 인물들이 자기 飛翔을 시도하다가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9) 金容誠, 「韓國現代文學史探訪」, (國民書館, 1973)에서 羅彬과 「文學思想」, 6號, (1972. 6月)
“새 자료로 본 稻齋의 生涯” 참조함.

3.1. 소외된 계층의 이야기¹⁰⁾

○… 그 집에는 삼룡(三龍)이라는 하인 하나가 있으니 키는 본시 크지 못하여 땅딸보로 되었고 고개가 빼지 못하여 몸뚱이에 대강이를 갖다가 붙인 것 같다. 거기다가 얼굴이 몹시 얇고 입이 크다. 머리는 전에 새꼬랑지 같은 것을 주인의 명령으로 깎기는 깎았으나 불밤송이 모양으로 언제든지 푸하고 일어섰다. 그래 걸어나는 것을 보면, 마치 읍두개비가 서서 다니는 것같이 숨차 보이고 더디어 보인다.

○…그러다가도 동넛집 아이들과 혹시 장난을 하다가 주인 아들이 울고 들어올 때에는 그는 황소 같이 날뛰면서 주인을 위하여 싸웠다.

〈빙어리 三龍이〉

○… 그러나 촌구석에서 아무렇게나 자란 데다가 먼저 안 것은 돈이었다.

○…안현집이 스물 한 살 되던 해인데 어떻게 해서 얻었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술파는 것을 눈을 맞추어서 얻었다고 하기도 하고, 계집이 김 삼보에게 반해서 따라왔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그런 것 저런 것도 아니라 계집의 전 남편과 노름을 해서 빼앗았다고 하는데 위인된 품으로 보아서 맨 나중 말이 가장 유력할 것 같다고 동리 사람들이 말을 한다.

〈뽕〉

○… 계집은 아무말 없이 서서 짐짓 부끄러운 태를 지으며 매혹적인 웃음을 생긋 웃고는 고개를 돌렸다. 그 웃음이 얼마나 짐승 같은 신 치규의 만족을 사게 되었으며 또한 마음을 충동시켰는지…… 계집은 영감의 팔을 한 손으로 잡고 또 한 손으로는 방앗간 속을 가리켰다.

「저리로 들어가세요.」

○…본시 사람이 좋고 마음이 약하고 다정한 그는 무식하게 자라난 까닭에 무지한 짓을 하기는 하나 그것은 결코 그의 성격을 말하는 무지함이 아니다.

〈물레방아〉

○… 그때 강원도 철원군에는 팔도 사람이 다 모여들었다. 그 모여든 종류의 사람인 즉 어머니 하면 대개는 시골서 소작농을 하다가 동양척식회사에게 소작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면 일확 천금의 꿈을 꾸고 허욕에 덤빈 사람들이었다.

○…「응, 잘 다녀오게.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오게. 허어 기막힌 일일세. 자네같은 귀동이 노동을 하려고 집을 떠나 간다니 자네 어른이 이 꼴을 보시면 가슴이 막히실 일이지.」

〈池亨根〉¹¹⁾

〈빙어리 三龍이〉에서 三龍은 신체적인 여건으로도 일반 사람과는 이질적인 인물이다. 특히 상전을 섬기는 종의 신분이며, 외모가 야비하고 누추하며 특히 빙어리라는 점은, 그가 일반

10) 이 글에 인용되는 작품은 모두 韓國文人協會, 「韓國短篇文學大系」, (1), (三省出版社, 1972)에 의함.

11) 이 부분은 尹弘老, 「羅稻香作品集」, (螢雪出版社, 1978)에서 인용.

인과는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는 계층의 인물임을 말해 준다. 그의 존재는 오직 상전을 충실히 섬기는 데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상전에 대한 그의 태도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뽕〉에서 안협집도 막되먹은 여자이다. 아무렇게나 자랐다는 성장 과정과 돈을 먼저 알았다는 내력이며 자신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무관심 등을 통해 볼 때 바로 가장 밑바닥 인생이다. 더구나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남자와의 만남이 노름 값에 팔려올 정도라면 사람됨을 알만하다. 그는 몸을 팔며 쾌락을 얻고, 돈을 벌고, 남편의 노름 밀친을 충당하는 걸로 족하다. 그의 남편도 그녀를 아내로서 보다는 노름 밀친을 대주는 여인 정도로 인식한다.

〈물레방아〉에서 이 방원은 무지한 짓을 하지마는 순박한 사람으로 상전을 받들며 살아간다. 그는 아름다운 남의 처를 빼앗아 고향에서 도망해 온 인물이다. 그의 아내는 정육과 물욕에 의해 자기 의사대로 행동하는 인물로서 윤리 의식이란 걸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

〈池亭根〉의 주인공 지형근은 몰락 양반으로 돈을 벌어보자는 욕망에 취한 인물이다. 과거에 양반이었다는 신분에 대한 향수와 지주였다는 과거의 사실은 그에겐 휴지조각처럼 쓸모없게 된다. 필요한 건 돈뿐이었다. 돈을 벌기 위하여 막 노동판으로 떠나야 할 정도로 극심한 처지에 처하게 된다. 이화도 비슷한 처지이다. 공사판 주변의 술집 여자로 살아가는 막된 여자였다.

이들 네 작품의 주요 인물들은 하나 같이 가장 밑바닥 계층 사람들이다. 그들이 왜 그렇게 비참한 인물이 되었느냐는 것은 〈池亭根〉을 제외하고는 설명되지 않지만, 그것은 바로 신분적인 것이면서 본래적인 것이다. 전통 사회에서라면 그들은 그러한 처지를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숙명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전통적인 인습에 묶여 자기를 뺑개쳐서 주어진 생활을 기계처럼 살아가지 않는다. 그들은 갈등을 갖기 시작한다. 그것은 현실과 부딪치는 욕망에서 기인한다. 여기에 이런 인물들의 행동에서 시대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그러한 행동이 절대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자기 의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3.2. 自己認識의 葛藤과 人間 關係의 破綻

稻齋 소설의 중요한 의미는, 그러한 하층 계층 인물들, 즉 종전에는 인간으로서 독자적인 자기 확인과 인식이 없었던 인물들이 비로소 자기를 인식하게 되고, 지금까지 자기가 속해 있는 상황에 대하여 갈등을 느끼고,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데서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인간 관계가 파탄되는 데 있다.

3.2.1. 병어리인 三龍은 충직한 종의 신분에서도 차차 비정스런 상전의 횡포에 비로소 자

기를 인식한다. <언제 폭발될지 알지 못하는 휴화산 모양으로 그의 가슴 속에는 충분한 정열을 깊이 감추어 놓았으나...> 이처럼 차차 자기를 인식하기에 이른다. 그것은 상전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갈등 의식은 주인의 횡포에 따른 본능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그 본능이 튀어나오게 된 데서 갈등은 더더욱 심화된다. 결국 그에 따라 주인 아씨에게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인식하는 데에 이르는 병어리로서의 의식의 비상이 있다.

...주인 색시를 생각하면 공중에 있는 달보다도 더 곱고 별들보다도 더 깨끗하였다. 주인 색시를 생각하면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이었다. 삼라만상을 씻어내는 은빛보다도 더 흰달이다. 별의 광채보다도 그의 마음이 아름답고 부드러운 듯하였다. 마치 달이나 별이 땅에 떨어진 주인 새아씨가 된 것 같고 주인 새아씨가 하늘에 올라가면 달이 되고 별이 된 것 같았다.

주인 아씨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주인의 횡포에 대해 저항감을 느끼는 것은 본능적일 수 있으나, 본능적 반응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특히 병어리인 三龍에게 커다란 의식의 변모였다. 그것은 실사 자기 아닌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안된다 할지라도 그 나름의 세계를 설정한 것이란 데 큰 의미를 갖는다.

아름다운 주인 아씨를 하늘의 달보다도 더 곱고 별보다도 더 곱다고 느끼는 이 생각은, 이성간의 애정으로 느꼈다는 것보다도 본능적 자아를 확인 하였다는데,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며 응당 받을 걸르 알고 살아온 그에게 하나의 커다란 의식의 혁명이었다.

상전의 횡포에 대하여 자기를 의식하기 시작한 병어리 三龍이는, 아름다운 주인 아씨를 대하면서, 그리고 그 여자의 비극적인 생활을 접하면서부터 주인에 대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아씨에 대한 마음은 더욱 강렬하게 솟아나서 결국은 주인과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가게 만든다. 주인 아씨를 생각하는 三龍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상전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긴 것이다. 이것이 더 진전되어 부부 관계에 三龍이가 개입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기존 인간 관계(상전과 종)의 파탄이다. 三龍이의 개입으로 이뤄지는 주인 아씨와 三龍이의 관계는, 종과 상전 또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에 대한 동정적 차원을 넘어 남성(三龍)과 여성(주인아씨)의 관계로 진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인 아들 부부의 관계도 파탄에 이르게 된다. 즉 三龍이의 갈등과 자기 인식은 결국 ① 종과 상전의 관계, ② 주인 아들 부부 관계, ③ 三龍이와 주인 아씨의 관계까지 파탄시켜 버린다.

3.2.2. <홍>의 안협집도 그렇다. 아무렇게나 자랐는데다가 먼저 안 것은 정조와 돈을 바꿀 수 있다는 막되먹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성도덕의 파탄이란 측면에서만 생각할 수는 없다.

…한번은 어떤 집 서방님에게 실없는 짓을 당하고 나서 쌀 말과 필록을 받아보니 그처럼
 죽은 벌이가 없어 차츰차츰 이번에는 자기 스스로 벌이를 시작하여 마치고 장사하는 사람이 거래 단
 골로 트듯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집어먹기 시작하더니 그것도 차차 눈이 높아지니까 웬만한 목도
 군 패장이나 장돌림 조금 올라가서 순사 나리쯤은 눈으로 거뜬히 보지도 않게 되고, 적어도 그곳에
 서는 돈 풀도 상당하고 여간해서 손아귀에 들지 않는다는 자들을 얼러보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 필자)

그의 매춘 행위는 능동적인 것이다.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서 스스로 선택하여 하는, 철
 저한 자기 인식의 결과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가 매춘을 하면서도 윤리적 갈등을 느끼지 않는
 것은, 그녀의 성장 과정과 첫번째 경험과 계속되는 매춘 행위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였
 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돈이 될 수 있는 경우만 하였고, 마음에 없는 짓은 결단코 하지 않았
 다. 계집 궁둥이라면 면치없이 따라다니는 삼돌이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도 끝내
 안협집과의 관계를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데 그녀의 모습은 더욱 뚜렷해 진다.

…맘에 드는 서방질을 부정한 일이 아니요, 죄가 아니요, 모욕이 아니다. 맘에 없는 놈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당하는 것이 무서운 모욕 같았다.

(· 필자)

그녀가 못 남성과의 관계는 철저한 자기 중심적이다. <마음에 든다>는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
 었다. 그의 정조 관념은 헤론 것만은 아니다. <매몰스럽기도 하여 한번 맘에 들지 않으면 죽
 어도 막무가내>인 것이다. 삼돌이와의 관계에서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그렇게 하여 번 돈을 남편인 김 삼보의 노름 밀친으로 쓴다. 그것은 남편이 노름을
 해서 돈을 한몫 모을 것을 바라는 저의에서다. 그러므로 노름 밀친 당하는 일은 안협집으로서
 는 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여긴다. 김 삼보 역시 아내의 정조를 별로 문제시 않는다.
 그에게서 절실한 일은 노름을 해서 돈을 따는 일이다. 아내보다 노름이 중요하다. 돈을 따는
 일이 그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다.

삼돌이에겐 어떤 방법으로도 안협집을 정복하는 일이 있을 뿐이다. 그러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 <뽕>의 인물들은 자기의 욕망 충족을 위하여 기존 도덕이나 인간 관계를
 개의하지 않고 거부하는 극히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다. 이러한 세 사람의 욕망은 결국 三者의
 인간적 관계를 파괴시켜 버린다. 안협집은 돈을 위하여 부부의 윤리를 파괴시키고, 김 삼보는
 노름을 위하여 아내의 부정을 개의하지 않는다. 삼돌이는 정욕 때문에 어엿한 남의 아내를 넘
 본다. <뽕>에서 셋의 관계가 모두 파괴되어 버린다. 부부의 관계는 이미 파괴된 것이다. 그
 령다고 안협집과 삼돌이가 결합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관계도 역시 파괴된 것이다. 삼돌이와
 안협집, 삼돌이와 김 삼보, 김 삼보의 부부의 싸움 등을 통해 모든 인간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이들에게 큰 싸움 사건이 새로운 인간 관계를 이뤄 주는 계기가 안 되었다는 점에서 더할 수 없는 파탄이다.

…말이 없이 서로 앉아 밥을 먹고, 서로 앉아 치어다보고, 서로 말만 없이 웃도 주고 받아 잘아입고 하루를 더 묵어 삼보는 가 버렸다. 안렴집은 여전히 동리 집 공청 사람에서 잠을 잤다. 누에는 따서 삼십 원씩 나눠 먹었다.

(· 필자)

개선되지 않는 이러한 평행 관계는 결국 이들의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의미한다.

3.2.3. <물레방아>의 이 방원은 고향에서 남의 집 아내를 꼬여 이 마을까지 함께 도망와서는 신 치규네 집에서 막실을 사는 처지이다. 한낱 막실이에 불과하나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이면 남의 아내라도 빼앗을 정도로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개의치 않는 인물이다.

그의 아내 역시 남편을 버리고 이 방원을 따라 도망쳐 왔지만, 이 방원의 처지로서는 자기가 원하는 행복한 생활을 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는, 다시 신 치규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응하는 욕망 충족을 삶의 제일로 삼는 인물이다. 이들 부부는 모든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방원에게 오듯 다시 신 치규에게로 달아나는 방원 아내에게 부부의 윤리 관념이나 성에 대한 도덕적 규범도 쓸모가 없다. 어떻게하면 호강하여 사느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①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이요. 이제부터 나를 어떻게 먹여 살릴 터이요?」

② 「……계집년 하나 건사 못하는 위인이 계집보고 욕만 하고 한 게 무어냐? 그래 은가락지 은비녀나 한 벌 사주어 보았어? 내가 입자 하자고 하는 대로 하지 않은 것은 없지?」

③ 「싫어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자기는 싫어요. 이제 나는 고만 그렇게 구차하고 천한 생활을 다시 하기는 싫어요. 고만 물렸어요.」

①②는 방원 아내가 신 치규에게 이미 마음을 결정한 후, 집을 나가게 된 방원이 안방 마나님께 사정을 해보라고 청을 하자 거절하며 자기와도 관계를 청산하자는 말이다. ③은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방원이 마지막 아내를 설득하는데, 아내는 가난에 진저리가 나서 천한 생활은 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대화이다. 이와같은 방원과 그 아내의 대화에서 이 여자가 방원을 버리게 한 요인이 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고향에서 첫번째 남편과 살다가 방원의 꼬임에 도망쳐나온 것은, 그녀 자신이 자기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방원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호강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자 가정을 버릴 수 있

있던 것은, 자기를 가정 안에 가둬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이 방원도 자기를 호강시켜줄 수 없게 되고 신 치규가 유혹을 뺏기자 방원과 신 치규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신 치규에게로 끼어 간다. 욕망을 통한 자기 인식에 이르고 그에 따라 살지마는, 결국 그 삶은 모든 인간 관계의 파탄만을 가져올 뿐이다. 그는 신 치규에게도 방원에게도 갈 수 없게 된다.

이 방원은 비록 남의 여자를 꼬여 고향에서 도망해 와서 신 치규네 막실이로 충직하게 살다가, 아내의 부정을 통하여 비로소 자신을 찾게 된다.

방원은, 막실이인 자기 처지에서 주인을,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주인은 돈을 갖고 사람을 팔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인식한다. 이런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주인이었지만, 자기가 죽으라고 좋아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마당에 모든 관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 <어려서부터 남을 섬겨보기만 한 그의 마음은, 상전이려면 모두 두려워하는 성질을 깊이 깊이 뿌리박아 놓았다. 그러나 오늘부터 신 치규는 자기 상전이 아니요 자기가 신 치규의 종도 아니라고> 느낀다. 뿐만 아니라 신 치규를 원수로 생각하면서, <간을 씹어먹어도 오히려 나머지 한이 없는 원수>로 생각한다. 여기에서 이 방원은 주인과 막실이라는 신분적인 위력, 돈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관계 등이 모두 파괴되고 오직 아내를 빼앗기는 이 방원과 빼앗는 신 치규의 관계만이 남는다. 여기에는 싸움만이 있을 수 있다.

「네 입에서 이놈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이 사지를 찢어발겨도 오히려 시원치 못할 놈아! 내가 내 계집을 뺏으려고 오늘 날더러 나가라고 그랬지?」 「어허 이저 그놈이 눈깔이 빼었군. ……」 「이놈 어디를 가? 내가 이때까지 맛을 몰랐구나?」
 하며, 한번 집어서 땅바닥에다가 태질할 한 뒤에 그대로 타고 앉아서 목줄대를 누르니까, 마치 뱀이 개구리 잡아먹을 처 모양으로 짹짹 소리가 나며 말 한마디도 못한다.
 ……옆에 있는 모루 돌맹이를 집어서 죽으라고 내리친다. 그의 팔, 그의 몸에는 본능적으로 숨어있는 잔인성이 조금도 남지 않고 그대로 나타났다.

인간 관계가 파괴될 때 남는 것은 대결뿐이고, 이 대결에서는 힘을 가진 자만이 이긴다. 상전을 타앉아 돌맹이로 내리치는 이 방원은 바로 피해자에서 공격자로 바뀐다. 그에게서는 무서운 분노가 폭발된다. 그것은 살아가는데 기본 요건인 먹이(食)—막실이 직업—와 성(性)—아내—의 박탈에서 오는 자기 존재의 위협에 대처하는 본능적인 저항일¹²⁾ 수도 있겠지만, 한편 강렬한 욕구의 좌절에서 파생되는 공격적인 힘이라 할 수 있다. 방원은 원래 욕망 속에 살아온 인물이었다.

아내의 불륜에도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 애쓴다. 그것은 아내가 좋아서였다. 남의 여자를 빼앗아 도망쳐 온 것도 아내가 좋아서였고, 상전을 때두드리고 잡혀가 옥살이를 한 것도 아내

12) 尹弘老의 앞책 해설(p.179)참조.

가 좋아서였다. 더구나 아내의 不貞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 몇 번이고 간청한 것도 아내가 좋아서였다. 그건 그의 가장 끈질긴 욕망을 내보이는 것이다. 그의 욕망은 사회의 계층 관계를 파괴함은 물론 여자의 성윤리까지 파괴시킨다. 그가 부정한 아내를 받아드리려 간청하는 일은 일상적인 윤리 관념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신 치규도 그런 인물이다.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인 정욕과 종족 보존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일상적인 윤리 의식은 가볍게 여긴다. 주인과 막실이라는 신분적 관계를 이용하여, 여자가 지니는 물질적 욕망을 미끼로 하여 이 방원의 아내를 빼앗는다. 욕망의 충족을 위해선 막실이와 주인, 막실이 아내와 주인이라는 인간-관계를 파괴해 버린다. 그리고 비인간적으로 막실이인 이 방원을 내쫓으려 한다. 더구나 방원의 분노로 크게 봉변을 당한 연후에도 계집에 대한 욕망은 버리질 않고 방원이 상해죄로 복역할 동안 잘되었다는 듯이 자기 집에서 몸을 치료하며 방원의 계집을 데리고 산다.

물레방아의 세 인물은 모두 욕망의 충족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다. 자기 욕망을 의식했다는 것은 곧 자기 인식의 한 과정인데, 그것이 바로 갈등을 [동반한다는 데 문제는 크게 된다. 결국 그 갈등은 극복되지 못한 채 더 격렬한 갈등을 낳게 됨에 따라 욕망 충족의 본능적 욕구가 더 강렬하게 부각된다.

3.2.4. <池 亨 根>에서는 몰락한 地主의 아들의 자기 인식 과정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옛날의 자기 처지에 대한 향수에서 깨어나 돈을 벌어야 하겠다고 마음먹는 일은 곧 자기 인식이다. 그러나 돈을 벌려는 그 자신은 돈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알지 못하는 순박한 인물이라는 데서 갈등은 시작된다. 그는 아직도 옛날의 그림자를 안고 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는 공사관으로 가는 도중 옛날 자기 집에 살았던 돈을 모은 김 서방네 집에서 하루 저녁 묵는 동안 세상을 느끼고 자기를 다시 인식한다.

김 서방은 존재도 아니요 어리벉벉하게 말을 해 버린다, 형근은 이것이 의외였다. 아무리 세상이 당해서 내가 제 집을 찾아왔기로서 어디를 보든지 말버릇이 그렇게 나오지는 못할 것이었다.

「어서 들어가세요.」

이번에는 <허세>가 나왔다. 형근의 얼굴은 노래졌다가 다시 붉어졌다.

집을 나올 때, 김 서방네 집에서 하루밤 묵은 후, 그리고 공사관에 이르러 막일꾼들과 생활하면서 그는 점점 <자기>를 인식하게 된다. 김 서방네 집에서의 하루의 유숙으로 그는 세상의 많은 물정을 알게 된다. 그러나 공사관에 이르러서는 계속 당하기만 한다. 가지고 간 돈과 옷(한복)을 다 팔아 본의 아니게 슬값으로 날려버린다. 그런 것은 돈을 남보다 되도록 빨리 되도록 많이 벌려는 욕망 때문이다. 그가 돈에 대한 관심도 대단하다. 돈을 벌고 나서야 모든 것이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은 몰락한 양반 地主로서는 새로운 면이다. 그러나 돈을 어

떻게 하면 벌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그에겐 없다. 허황된 욕망만이 잔뜩 부풀어 있었다. 금광을 찾아간 사람 모양으로 돈이 곧 손에 들어올 줄 믿는다. 여기에 친구 세대 교체기에 서 있는 바보스런 인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방법이 없고 기대만 잔뜩 갖고 있는 속 빈 인물이 바로 지형식이다.

공사판 술집에서 고향 여자인 〈이화〉를 만나면서부터 돈에 대한 인식은 좀더 구체적이고 절실해진다. 이화에게 연정과 비슷한 동정을 가지나 돈이 없어 자주 만날 수도 없다. 그녀를 구해주고픈 마음이 간절하나 돈이 없어 괴로와 한다. 결국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으로 인식하기에 이르고 돈을 벌어야 하겠다는 마음은 더 간절해진다. 결국 그는 동향 친구의 돈을 훔쳐 이화를 구하려 한다. 이것은 비도덕적인 처사이다. 〈도둑질〉이란 비도덕적인 행위를 쉽게 저지룰 수 있는 것은 돈을 마련하여 이화를 구하여야겠다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욕망 때문이다. 결국 그 욕망이 그를 도둑질하게 만들어 버린다. 사실 그에게 이화를 구한다는 사실은 필요한 일도 아니고 하여야 할 일도 아니다. 그리고 그건 격에 안 맞는 일이다. 그는 돈을 벌려고 안 해본 노동을 하려 고향을 떠난 처지이다. 술집 여자에게 마음을 쏟(엄청난 착각에 의해) 입장이 아닌 데도 도둑질을 하면서까지 그 일을 한 것은, 그의 마음 속에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지난 시대의 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그에게는 갈등적 요인이 된다. 그가 이화를 구하려는 행위는 곧 모든 것을 파괴하게 만든다. 친구와의 관계가, 돈을 벌겠다는 순수한 자기 의식이, 그리고 이화와의 관계까지 파괴되어 버린다.

이와같이 稻齋의 후기 작품들에 나타난 인물들의 자기 인식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면서 인간 관계를 파탄시켜 버린다. 즉 자기 인식이란 것은 갈등 관계를 발견하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그 갈등을 극복하려 할 때 필연적으로 그 때까지 형성되었던 인간 관계는 깨뜨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 자기 인식의 계기가 되는 것은 본능적인 욕망이다. 돈이고 정욕이고 원초적인 분노이기도 한다. 전통적인 인간 관계는 하나의 인습일 수도 있다. 그것은 그 때까지 이뤄놓아진 사회적인 질서였다. 그것들 중에는 새 시대에 와서는 응당 버려야 할 것들도 있다. 그러나 버리고 선택하는 일이 바람직한 계기를 통하여 이뤄지고, 버린 후에 다시 이룩해 놓을 것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버림(파탄)만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것은 비극적인 정황일 수 밖에 없다.

3.3. 飛翔의 慾望과 그 挫折

자기 인식을 통한 전래적 인간 관계의 파탄은 飛翔의 한 양식이다. 그러나 파탄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 놓을 인간 관계 형성이 가능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간 관계를 이룩해 놓을 가치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시대의 혼란을 뜻한다. 여기에 파탄은 창조로 승화될 수 없고 좌절

로 떨어져 버리는 비극이 있다.

三龍이는 주인 아씨를 하나의 이성으로 대할수록 주인 아들에 대한 분노도 더해진다. 아씨가 죽게 된 사정을 안 三龍이는 담을 넘어 아씨를 구한다. 그러나 결과는 그제 오해를 빚어 그는 모진 태형을 당한다.

三龍이와 아씨의 관계가 밀착될수록 주인 아들이 三龍에 대한 가학 증세는 더 심해진다. 결국 三龍이 쫓겨나게 되고 극심한 자기 좌절에 빠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는 자기를 다시 인식하게 된다. <비로소 믿고 바라던 모든 것이 자기의 원수란 것을 알고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자기 또한 없어지는 것이 나올 것>을 알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다시 자기 飛翔을 시도한다. 피문은 살을 맛있게 잘라먹는 요마의 혀바다처럼 날름날름 집 한 채를 삼시간에 먹어버리는 불꽃을 보며, 마지막 복수를 결행하는 쾌감을 맛보며 자기를 확인한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가 의도한 대로 아씨를 구하지 못한 채 함께 죽는다. 그는 불꽃에 싸여 죽음의 직전에서야 자기의 진정한 삶을 인식하기에 이른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는 쾌감을 얻고 죽었다. 복수는 그에게 진정한 삶을 인식시켜 주었다. 그러나 그도 결국 아씨와 함께 죽어야 했던 것은 飛翔에의 비극적인 挫折이다. 종의 신분인 병어리로서의 자기 인식의 한계를 제시해 주는 것이며, 시대상이 빚어낸 갈등 극복의 한 양식이다.

<뽕>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그들이 삼돌이의 음모에 의하여 한번 크게 흔들린다. 그것은 하나의 갈등이다. 그들의 욕망 충족이 벽에 부딪친 것이다. 그러나 그런 벽도 역시 그들의 삶의 방법에 의하여 극복되지 못한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평온하나 일단 좌절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한 생활 양식이 그들을 구제할 수 없다는 데 진정한 좌절이 있는 것이다.

부부의 성 윤리의 파탄은 변모된 사회의 한 징후이다. 돈과 욕망에 의하여 모든 것은 허물어진다. 안협집이나 김 삼보에게 그들 부부 관계를 유지시켜 주고, 부부의 윤리성에 대신되는 것은 돈이었다. 이것은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누구나 돈을 벌려고 애를 쓰던 한 세태를 그리고 있다. 여기에 기존 도덕의 문란으로 인한 가치 의식의 붕괴와 한 시대의 정신적 혼란상을 볼 수 있다.

<물레방아>에서 욕망에 쫓아 살려는 이들은 모두 좌절하고 만다. 이 방원의 복역은 신 치규와의 관계(막실이와 상전)를 청산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아내에 대한 마음은 변하질 않았다. 아내를 찾아와 설득하나 실패한다. 그는 아내를 잃게 되자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자기를 발견한다. 그것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다. 이것은 큰 좌절이었다. 여기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기를 철저히 인식한다. 그것은 절망이다. 그는 욕망에 사로잡힌

아내를 죽이고 자신도 죽는다. 둘 다 욕망 충족이란 자기 飛翔에 失敗하고 挫折한다. 그것은 하나의 큰 비극이다. 이러한 비극의 원인은 욕망이다. 이 방원 아내의 물질적 욕망, 신 치규의 정욕, 이 방원의 삶에의 욕망, 이러한 욕망은 기존 인간 관계의 파탄을 가져오게 하면서 새로운 飛翔을 도모하나 결국 挫折하고 만다.

〈池 亭根〉에서 형근도 돈을 벌겠다는 욕망과 이화라는 여자를 구하겠다는 욕망이 좌절을 당한다. 친구의 돈까지 훔치지만 이화를 구하지 못한다. 그것은 이화와 지 형식이 갖는 마음이 화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돈을 벌지 못한 좌절보다 더 큰 挫折이 있다. 지 형식은 옛생각에 잠겨 있는, 세상 물정 모르는 일간이었으나 이화는 그렇지 않았다. 이것이 지 형식이 첫째 좌절이다. 반 윤리적인 행동을 하면서 얻은 돈으로 이화를 구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이화가 그에게 구제받을 처지도 안되어 있다는 데, 지 형식의 좌절은 클 수밖에 없다. 이 좌절은 신·구 세대의 갈등에서 연유된 것이다. 이화, 조주사, 면서기 같은 새로운 세대의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지 형식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형근은 인습 관념에 젖어 있는 젊은 피는 끓었다. 그는 결코 자기가 노동자는 아니다. 양반의 자식이요, 행세하는 사람이다…….

「무엇, 노동자!」

형근에게는 그 외에 더 큰 모욕이 없었다. 그는 면서기를 향하여 기운에 타는 두 눈을 부릅떴다.

여기에 신·구 세대의 갈등은 표면화되는데, 이 싸움으로 그는 결국 경찰에 잡혀서 절도범임이 판명되고 검사국으로 압송된다.

돈을 벌겠다던 꿈, 잃어버린 자기를 다시 찾으려던 꿈, 이화를 구하려던 꿈은 모두 무산되고 만다. 구시대의 정신적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새로운 세대에 적응하여 살아가려는 한 인물의 좌절을 통하여 이 작품은 한 세대를 반영해준다. 특히 공사판에 물려든 술한 인물들을 통하여 더 많은 지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稻齋의 네 작품은 새 세대를 살아가려는 하층 계층 인물들이 외계의 환경과 자기 인식에 따르는 갈등에 부딪치면서도 자기 飛翔을 도모하려다가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과 갈등과 비상과 좌절의 소설 구조는 1920年代 사회 상황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문학사적 의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Ⅳ 稻香 소설의 意味

稻香이 베 낀 소설이 갖는 자기 인식의 葛藤과 飛翔에의 욕망과 좌절이라는 소설 구조는, 변혁의 시대를 살고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관계가 있다. 특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인식의 과정 자체가 혼돈된 사회의 가치 질서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것은 정당한 인간 의식의 발로이기 보다는 오히려 情慾, 不倫, 物質的 慾望과 같은 파행적인 동기에서 시작되었다는 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자기 인식을 통한 파행적인 행위는 필연적으로 기존 질서 속에서의 인간 관계를 파괴시켜 버리는데, 이 파괴는 새로운 인간 관계를 형성시키지 못한다는 데서 혼돈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끝난다.¹³⁾ 그러므로 결국은 비극을 자초하여 飛翔하려는 욕망은 좌절 몰락하고 만다. 최후의 자기 인식은 철저한 절망이라는 비극적인 불행과 만나는데 그것을 다시 극복하기 위하여 죽음에 이른다. 죽음은 자기 인식과 좌절이라는 양면을 내포하기 때문에 더 비극적인 정황을 보여준다. 죽음을 통한 자기 인식이라는 이 소설의 비극적인 결말은, 자기 인식의 한계이고, 현실적인 자기 飛翔의 한계이다. 이것은 시대의 본질을 탐구하고 그것을 추상화하여서 이뤄진 결과이다.¹⁴⁾

나라를 잃어버리고 구세대의 가치관에 대한 성토가 계속되고 모든 기존 가치 질서가 흔들리는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체제의 변혁, 신분 관계의 재 명성, 이러한 격변기의 정세에서 사람들은 자기 욕망의 충족만을 추구하며 살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그럴수록 더 혼돈이 야기되는데, 그 욕망은 결국 좌절될 수밖에 없다. 稻香 소설의 구조는 이러한 혼돈된 사회의 구조를 형상화한 것이라는 데 意味가 강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세태의 재현이나 반영이라는 소박한 리얼리즘의 차원보다는 더 창조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소설 구조의 이면에는 작가 개인의 인간적 체험이 짙게 깔려 있음을 문제삼아야 할 것이다. 의학 수업을 해서 안정된 직업을 택하도록 하는 집안의 권유에 대해, 자기 飛翔을 시도하기 위하여 문학에의 熱望 속에 방황하다가 좌절할 그의 인생의 편력이 이러한 구조 속에 담겨져 있다. 稻香 소설은 1920年代 변혁기의 사회 구조와 사람들의 의식이 작품 구조를 통해 형상화되었다는 데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13) 인간 관계의 파탄은 삼각 관계에서 시작되지만은 그것이 또 다른 관계를 만들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이 문제는 이후에 많이 유행된 소위 대중소설에서의 삼각형의 인간 관계와 대조적이다.

14) Michel Zeraffa : *Domani et Société*의 영역본 C. Burns and T. Burns : *Fictions*, Penguin Books Ltd, 1976, (pp.8~9)참조.

— Summary —

A Study of Rha, Do-hyang's Novels

Kil-un Hyun

The structure of Rha, Do-hyang's novels—self-consciousness vs. inner conflict and desire vs. frustration—has a close relationship to the living-style of the people who lived through the period of disorder and upheaval in Korea. Especially, this self-consciousness has a considerable significance in that it was formed in the chaotic social order. It is from the limping motives such as passion, immorality, and material desire that the chaotic social order.

In Rha's novels the limping actions taken through self-consciousness destroy the human relationship in the existing social order, and in the end, its im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new human relationship leads to adding up chaos. Therefore, such actions brings about tragic catastrophe and the soaring desires are frustrated and blocked.

This is the limit of this self-consciousness, of the subjugation of inner conflict, and of realistic self-soaring;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chaotic social disorder is shaped in the structure of his novels.

The other side of such a structure of Rha's novels is based on writer's human experiences. In other words, in this structure his life is expressed through which he gave up a secure living for his literary order and attempted a self-soaring.

The literary historic significance of Rha's novels lies in the fact that in this structure of them he creatively represent the Korean social structure of 1920's, the period of upheaval and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who lived in the chaotic society.